

이주자의 사회경제 계층에 미치는 출신국의 영향 연구*

-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하여

이선주

1. 연구의 목적과 구술생애사 연구방법론

20세기 마지막 십년부터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말이 더 이상 학문의 장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과장 섞인 용어가 아니다. 지극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변동에서, 환율이나 수입품과의 가격 비교에 따른 생업에서의 이득의 변동 등에서 매일매일 세계화를 피부로 느끼며 산다. 그냥 느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 갈 방법을 머리를 싸매며 짜내야 하는 생존의 현장이다. 자본과 물자와 정보가 국가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고 각각의 개인은 한 국가가 아닌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위치 정하기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유의지가 있는 생명이기에 앞의 다른 것들보다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선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www.kci.go.kr

도 현 터전의 기반과 정을 떼어내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다. 아파두라이(Appadurai)도 확장해가는 현대성에 따라 사람들의 풍경 즉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가 여행자, 이주민, 임시 노동자, 여타의 이동 중인 집단들과 개인들로 현저히 달라졌음을 지적한다(61). 물론 출생과 거주, 부모·자식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형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대면하여 유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대 이래로 인간의 삶과 상상력의 틀로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국가의 위상 약화가 두드러진다.

세계화 속에서 정말 국가는 그 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까? 자본증식을 위한 맹렬한 운동과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의 필요성이 국가의 위상을 예전 같지 않게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위력은 별로 약화되지 않았다. 이민정책과 국경강화를 통해서 국가들은 사람들의 국제적 흐름에 핵심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어느 나라 출신들을 받아들이고 몇 퍼센트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직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자국민이 회피하는 부족한 업종의 인력을 보충할 것인가는 모두 국가의 긴요한 정책 사안이다. 국가들은 이주를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가들은 잃어버렸던 국가의 위력을 국가안보를 내건 이민정책을 통해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통제정책을 쓰고 있고 이민자의 나라여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주민에 대해 보다 신축적이었던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이민정책의 빗장을 잠그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을 제정하여 이주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황혜성 341).

이주를 통해 새로운 땅과 국가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 할 때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탈경계인문학연구단에서 진행하는 구술 아카이빙 중 이

주자에 대한 구술작업을 틈틈이 2년 정도 진행해 왔다. 이주의 경험을 한 탈북자,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 혹은 혼인이주자, 그리고 미국이민자, 미국 이민 갔다가 어른이 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을 구술해왔다. 구술의 일차적 목적은 이주에 대한 연구를 할 사람들이 우리 연구단의 아카이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록에 있었고 나 자신이 어떤 논문 주제를 가지고 구술대상을 찾거나 질문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특정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접근한 것이 아닌 구술채록이었는데도 20명 이상을 2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나누고 녹취와 검독을 하느라 다시 읽어보는 과정을 하면서 이주한 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주한 이유도 각기 다르고 송출국이나 유입국이 같지만은 않은데도 어쨌든 이들이 본국을 떠나 이주국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회적 신분에 위치하게 되느냐는 바로 출신국 즉 본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국을 떠났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떠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국은 도착한 나라에서의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세계 구도 속에서의 본국의 경제력과 정치력과 위상이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떠난 사람의 타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까지 결정짓는 데서 국가의 흔들림 없는 위력을 보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이 살아내야 할 현장인 세계 속에서의 경제의 위계화를 확인한다.

본 논문은 필자가 구술한 사람들 중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미치는 출신국의 영향이라는 주제와 연관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탈북자의 경우는 이주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강제한 측면이 강해서 난민(refuge)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을 조선족과 미국한인으로 한정해 논의를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선족과 미국한인에

집중하여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미치는 출신국의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에서는 한국으로 일을 찾아 이주한 이주노동자 두 사람(손명자, 김순정),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온 조선족 혼인이주자 두 사람(이애숙, 이영희),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다루었고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으로는 이민 초창기인 70년대에 이민을 간 사람 위주로 5명(이정윤, 김정미, 조자룡, 이영미, 이혜순)을 다루었다.¹⁾ 미국한인 중 김정미씨와 이정윤씨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둘 다 한국 유학생과 결혼을 하였고 김정미씨는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이고 이정윤씨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이 한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현재 함께 나와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두 사례는 미국한인의 경우이면 서도 “return migration” 즉 순환이주²⁾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필자가 중국 조선족과 미국 한인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선족과 미국한인이 한국인이 관련된 이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힘없는 소수민족 중 하나로서 위치하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와, 70년대 미국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면서 가난한 제3세계인 한국에서 이민을 간 한인들의 경제적 입지는 매우 비슷한 열악한 계층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조선족은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만주로 이동하여 중국에 정착했다가 현재 일자리를 찾아 본인이 조상의 모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로서 1990년대에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돌아온 일본 계브라질인들의 경우와 똑같이 순환이주이다.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갔다가 결혼이나 일 때문에 성년이 되어 다시 돌아온 김정미, 이정윤씨의 경우가 순환이주이다. 똑같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순환이주이지만 조선

1) 구술자와 구술내용에 대한 안내는 논문 마지막에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2) “return migration”은 귀환이주라고도 번역되나 영원히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국과 이주국을 오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순환이주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족과 미국한인에 대한 모국인 한국에서의 대우는 현격히 다르다. 그 차이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다시 돌아온 한인과 조선족을 비교하는 경우보다 훨씬 격차가 큰 경우여서 출신국에 따라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입지가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구도 속에서의 본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이주국에서의 이주자의 사회경제 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문헌연구들은 있어 왔다.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연구를 한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노동과 자본의 이동』(*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과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설동훈의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본 논문과 연관된 연구이다. 이 주제를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나 샤론 하알리(Sharon Harley)가 편집한 『글로벌 경제에서 여성의 노동』(*Women's labor in the Global Economy*)과 동숙 질스(Dong-Sook Gills)와 니콜라 파이프(Nicola Piper)가 편집한 『글로벌 아시아에서 여성과 노동』(*Women and Work in Globalising Asia*)에서 여성노동의 국제적 흐름은 이주자의 이주국에서의 계층에 미치는 본국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필자가 이 주제를 사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한 구술생애사방법을 통해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이주문제를 공부할 연구자들을 위한 채록의 목적으로 시작한 이주구술을 상당 기간 해오면서 많은 이주자들의 생애에서 바로 이 끈질긴 출신국의 영향력을 귀납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그 사실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 아울러 필자는 중국과 미국으로 이주해간 한국인들의 후손이 한국사회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며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는 아직 문헌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순환이주자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 할 수 있었다. 구술생애사방법은 개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노동의 위계적 세계화를 읽어내게 하며 증거수집과 일반화를 위한 시간지체가 필연적인 문헌연구보다 앞서서 현재 이동 중인 사람들의 생애구술을 통해 순환이주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질적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행위와 개념이 놓여있는 맥락인 연구 대상의 일상적 삶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 질적연구방법에는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 생애사, 현상학, 텍스트 분석,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 18). 구술사와 생애사는 각각 질적연구방법에 속한다. 구술사는 응답자가 연구자의 질문에 문자가 아닌 말로써 풀어나가며 답변을 한 것으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나간 생애사 일수도 있다(Popular Memory Group 207). 생애사는 자서전과 같이 자신의 생애를 글로써 쓴 경우도 있고 말로 구술한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이 구술생애사라 함은 조선족과 미국한인들을 만나 그들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얘기해 나아가도록 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여 그냥 평이한 인생이야기가 아닌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살아 나가는 한 개인의 생애가 압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구술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택림은 “구술생애사는 특정 개인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역사화 할 수 있는 연구방식이며 심층면접을 통해서 구술자의 삶의 과정을 사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이라 하였다(특강자료 7).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목소리로 개인의 성장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다른 사회과학 연구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안병직 37). 그러나 역설적으로 구술자료의 가치는 바로 그 주관성과 개인성으로부터 온다. 구술생애사는 바로 개인을 통하여 사회와 구조를 바라보

는 연구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구술생애사가 사회와 구조를 바라보는 방식이 될 수 있는지는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민족지 기술이 갖고 있는 미시적 특성의 사회적 함축성을 설명하는 다음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민족지 기술이 미시적이라는 말은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지극히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는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보다 더 넓은 해석으로 보다 더 추상적인 분석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인류학자들도 역사가나 경제학자 등이 보다 숙명적이고 중대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권력, 변동, 신앙, 억압, 노동, 정열, 권위, 아름다움, 같은 거창한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이 그러한 것들과 만나게 되는 상황은 그렇게 거창하다고 볼 수 없는 즉 애매모호한 상황에서이다. 우리 모두를 떨게 하는 그러한 거창한 낱말들도 이처럼 인간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는 평범한 형태로 나타난다. (35)

개인의 삶 속의 어떤 계기나 결정이 매우 개인적인 일이면서도 필연적으로 사회적 연관성과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족과 미국한인의 구술을 들으면서 필자는 그들이 그냥 상황에 밀려서, 혹은 자신이 선택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 결정적 이주의 순간에서 그저 한 개인의 힘만 작용한 것이 아닌 매우 큰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음을 보았다. 연구자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삶의 사회적 위치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만이 아니라 구술자들도 비록 거창한 추상적 용어로는 아니지만 자기를 에워싼 환경의 요인을 구술을 하면서 더욱 깨닫고 자신의 삶에 해석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구술생애사가 어느 한 사람의 생애이야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구술자와 연구자 공동의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구술생애사의 첫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해석적인 연구라는 것이다. 구술자는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의미화하는 해석작업을 하는 것이며, 연구자는 구술자에게서 들은 생애에서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해석해낸다.

구술생애사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적 맥락을 되짚어 보는 연구라는 점이다. 해치와 위스니스키(Hatch & Wisniewski)는 생애사가 다른 형태의 서사(narrative)와 구별되는 점으로 개인의 생애사건과 사회적 사건과의 연관성을 든다. “그 사람의 생애가 단순히 사건들의 집합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살아진 존재로서 보여진다는 점이다”(115). 바로 사회경제적 컨텍스트와의 연결 때문에 생애사는 서사를 한 단계 더 깊이 데려간다. 생애사의 힘은 개인들의 독특한 경험과 넓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의 구속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다(이희영 126). 이들 구속을 생애이야기 속으로 예술적으로 짜 넣어 이 구속들이 눈에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존재가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윌택림도 “구술사는 다른 사회과학연구에서 다루기 힘든 개인의 사적, 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고, 그 개인의 삶은 바로 그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또한 역사적인 것이 된다”(윌택림, 특강자료 7)고 말한다. 아울러 구술생애사의 사회적 맥락방식은 다른 학문연구와 달리 독특하다. 다른 연구들이 대부분 문화나 사회와 같은 큰 개념을 가져와서 한 특정 아이디어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데 반해서, “구술생애사 연구는 문화와 사회 같은 커다란 개념이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 정의되고(defined)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이다(Hatch & Wisniewski 117). 즉 구술생애사 연구는 구술자 개인이 살아온 인생에 방점이 찍히며 그 인생 속에서 사회경제적 맥락이 어떻게 연결·작용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귀납적 작업이다.

셋째, 구술생애사는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져 어떤 다른 질적연구방법보다도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우호적 라포형성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기록에 남기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웬만

한 믿음이나 당위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라포형성을 위해서는 구술 전 사전 예비접촉을 하고 연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구술자의 긴 인생여정 속에서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있게 풀어낼 수 있게 하느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달려있다. 면담을 한 연구자가 바뀐다면, 그 면담자의 관심사나 성향에 따라 구술자의 생애사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구술 생애사는 구술자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연구자의 질문은 구술이 나아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자의 반응은 구술자의 답변에 과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공감의 표현으로 구술자의 더 깊은 얘기를 끄집어 낼 수도 있고, 너무 단정적 언급이나 성급한 맞장구로 구술자의 이야기가 계속되지 못하고 멈추게 하기도 한다. 구술자와 연구자의 관계가 구술텍스트의 속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구술생애사는 공동작업의 성격을 띤다.

구술생애사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많이 논의와 논란을 거듭하는 이슈는 생애사에서 “훌륭한” 작품이라는 판단 기준의 문제와 윤리적인 민감성의 문제이다. 생애사연구 학자인 해치와 위스니스키는 같은 분야의 학자들 약 8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생애사연구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꼽았다(120). 생애사에서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 무엇이 “좋은” 생애사일까? “좋은” 이야기만으로 충분할까? 무엇이 진정한 생애사를 만드는 것일까? 생애사를 학문적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 이 질문은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이 들던 질문이었고 아마도 구술면담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되묻는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답은 현재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 논문에서 다루려 하는 부분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문적 자료로서 좋은 구술생애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측에서 선행지식을 가지고 적합한 구술자를 섭외하고 적합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면담자와의 열린 관계 형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구술생애사를 비롯한 질적연구방법에서는 유난히 윤리적인 문제가 민감하게 다루어지는가? 문헌자료를 읽을 때와는 달리 녹음된 구술을 받아 쓴 녹취록을 읽을 때면 그 때 그 얘기를 하던 당시의 정황이 또렷이 떠오르고 논문과 관련된 녹취의 해당부분을 발췌할 때에도 혹시 그릇되게 도용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 그 이유는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이 통계 숫자 뒤에서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서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관계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Kirk 15). “연구자가 구술자와 어느 정도 라포 즉 신뢰성과 상호이해를 확보해야 (구술사) 연구가 가능하다.”(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 180)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연구과정에 노출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기, 신뢰, 공정성, 존중과 같은 예민한 이슈에 자신을 내놓는 것이다. “구술자가 자신들이 생애사 연구자와의 관계망에 들어오기로 동의하면서 취약해(vulnerable)지게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Hatch & Wisniewski 119). 생애사 작업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구술자들을 공정하게 연구에서 다루는 문제이다(메이슨 71).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연구결과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여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권력의 비대칭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미치는 출신국의 영향

나나 오이시(Nana Oishi)는 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를 다룬 책에서 “유입국에서의 이주자의 수요와 임금수준의 결정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 서가 아니라 국가별 스테레오타입에 의해 결정된다”(49)고 말한다. 한 국가의 이민정책에서 식민지였다거나 같은 종교라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정부가 세운 범위 안에서 고용주와 직업소개소들은 이주자를 선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주자들의 임금은 고용주의 선호도에 따라 각 국가별로 결정된다. 오이시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유입한 이주자들을 비교해본 결과 필리핀인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한다(51). 필리핀인은 세계지배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 이주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주자의 시장임금은 그러므로 각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자격에 기댄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은 출신국에 따라 이주자의 경제수준과 사회적 입지가 상당히 크게 결정지어져 버리는 상황을 조선족 노동이주자와 혼인이주자,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들을 통해 II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이나 혼인이주로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계층

1980년대 후반 즈음부터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유입요인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일본과 함께 한국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즈음 노동자 투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노동력 송출국과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고 원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와 비교할 때 강세를 유지하였다(설동훈 153).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국내의 농촌인구를 통한 노동력 충원은 고갈되었고 저출산

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육체노동에 해당되는 3D 업종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유입요인이었다. 이에 반응하여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높은 통화 차이와 많은 일자리에 유혹되어 한국으로의 취업을 열망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같은 혈통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연변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손명자씨는 1990년도 즈음에 한국바람이 불었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A: 89년 90년도부터 이 한국바람이 불었어요 그 때 우리 올케가 처음에 나왔어요 한국을. 우리 시동생이랑 그 때 다 나오고 그래 올케가 야, 지금 나오면 넌 엄청 번다 근데 그 때는 이 한국땅이라는게 돈을 버는 거 몰랐죠 그 때 우리 생각에. 우리 생활이 박하면 막 한국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 때 생활이 또 넉넉한 편이라 내가 쉽더라고 신랑이 공무원 생활해서 그 월급갖고 살고 아들 대학 공부는 저희 또 뭐 신랑이 월급도 타고 마트 시장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공부시키고 이 한국에 대한 미련은 그 땐 정말 생각도 안했었어요 그러다 차차차차 불어갔고 진짜 많이 나오고 우리 올케도 돈 엄청 번거예요

Q: 근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와서 번 차이가?

A: 그 때 당시에는 10대 1이 비례됐었어요

90년대 초에 브로커를 통한 입국경비로 수 백만 원을 빚을 지고, 심지어 위장결혼을 해서라도 한국취업을 나오려는 배경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소득수준 격차가 큰 역할을 하였다. 손명자씨도 임금차이가 10:1이라고 하듯이 90년 초에 한국에서 한 달 일하여 번 돈이 중국에서 1년 버는

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으로의 취업 동기는 손명자씨의 경우는 아들을 다른 지역의 사립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과 노후대비책이었고 김순정씨의 경우도 두고 온 아이 네 명의 교육비가 그 이유였다. 송출국의 주요 배출요인은 ‘한국바람’과 ‘자식-교육열’이었다. 그리하여 손명자씨는 남편을 두고 단신으로, 김순정씨는 아이 넷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한국행을 택한다.

조선족 이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국바람이 불 때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에서 가난한 계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극빈층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층민이 아닌 중산층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주를 감행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손명자씨의 경우는 남편이 평생 공무원을 하고 있고 자신은 농사도 좀 짓고 마트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를 않았다. 한국에 이주노동으로 온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손명자씨는 최근 취업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나 그전까지는 모두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을 한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그때는 왔지요. 그때는 남의 돈을 드렸 써도³⁾ 그거 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거 생각도 못했죠.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똑똑해야잖아요. 남의 나라라는 게 좀 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얼뼔하고 하면 와서 일도 못하고 그런 처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왔죠.”

조선족 이주의 경우 가난한 층에서 이주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사회적 신분에 있어 상당한 전략을 경험한다. 같은 동족임에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이미 편견과 멸시가 스며 있듯이 한국사회에 와서 조선족이라는 이질성 때문에 겪는 차별과, 또한 생전 해보지 않은 남의 집일이나 식당일을 하면서 겪는 사회적 강등의 경험을

3) 돈을 빌려 써도

한다.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계속 오게 되는 것은 한국에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경제적 이점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의 고된 생활을 모든 조선족 여성이 한결같이 토로하였고 다음은 김순정씨의 말이다.

A: 예 벼룩시장 보고 이제 저 수원에 무슨 함바식당에 가 일 했어요.
에 그때는 80만원 받고, 진짜 막막막 눈물이 매일 올다시피 했고
이 애들 네 놈두고 온 게 가슴이 아프고 예 그래가지고는 이 집에
애들하고 이 전화 걸면 울어가지고 아저씨가 전화를 못하게 했어.
애들 보고 싶고 그 너무 어린 것들 놔두고 오고 한참 엄마 손 이제
바라는 애들인데 이제 저 어머니한테 이제 거기 땀겨놓고 나오니
까 가슴 아프고

Q: 그 때 아저씨도 나와서

A: 아저씨도 나와 계시죠 그래가지고 한발식당에서 한 두 달도 안
돼요 하다가 안 그러면 계속 할 건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지고 막 안하겠다고 막 울면서 나왔어. 그래 나와 갖고 봉급도
한 3, 4개월 걸려서 안취가지고. .

조선족 이주에서 또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필자가
구술을 하려고 소개를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실제 “통계상
으로도 혼인이주 여성까지 합하면 조선족 중에서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는다”(이혜경 외 259).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의 1/3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족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는 조선족 노동의
수요가 여성들이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식당이나
가정집, 혹은 병원 간병인으로 취업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우 낮은
수당을 받으며 식당에서 힘겹게 일하고 점차 병원의 간병인으로도 일하
다가 나이가 더 들면 육체적으로는 좀 더 편안한 가정부로 입주하는 경향
을 보였다. 니나 오이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중 국가가 유독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수요를 확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유입을 확충한 데에는 자국의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면서도 육아복지에 장기 투자하기 보다는 육아와 가사를 저렴한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전담하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32). 최근 특히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로 입주한 조선족 여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요증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을 고양하는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주의 여성화를 촉발하는 또 한 양상은 혼인이주이다. 90년대 들어 일본처럼 한국도 아시아 여성들을 결혼을 위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신부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힘든 농사일과 시골거주나 낮은 생활수준과 같은 열악한 요인 때문에 시골사람과 결혼하기를 기피했다. 신부부족과 농촌인구 감소를 개선하려고 지역당국은 미혼의 중년농부와 외국인 신부를 나서서 연결하였다. 출신국에 따라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결정되는 현상은 노동이주만이 아니라 혼인이주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연예결혼이라기 보다는 한국인 남성이 단체로 가서 단기간 머물며 선을 보고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복되었다. 중국 조선족으로 강원도 횡성으로 시집온 이애숙씨는 고등학교를 연변을 떠나 상해에서 다녔고 상해에서 한국인 회사에 3년 동안 취업하여 한족과 한국인을 통역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의사인 한족까지도 지원한 한국인 회사였다고 하니 그녀는 매우 좋은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변에 선보러 온 현재 남편을 친척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한국에서의 첫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적응하는 데 남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와갓고 시골에 딱 내렸는데 진짜 캄캄한 거예요 우천면이 또 먼단위라 불 하나 없잖아요. 밤비행기로 와갓고 늦게 떨어졌으니까 횡성 들어가는데 산

많잖아요. 옛날 좁은 길로 들어가면 다 산이잖아요 가도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Q: 속이 답답했겠네요

A: 예. 어디로 가냐고? 집으로 간대((함께 웃음))

나는 오면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집에 버스 와서 서냐 앞마당에, 차가 다니냐 물어봤어요. 차가 다니게 되면은 너무 시골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차가 문 앞까지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차가 문 앞까지 오는 건 맞잖아요. 몇 개 안돼서 그렇지.

집으로 간다면서 한없이 불도 안 켜진 산골로 들어가던 황당한 기억, 일정한 일자리도 없이 “노가다 뛰고” 있는 남편 얘기를 그녀는 담담히 구술한다. 마을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그녀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불리한 결혼을 했다고 여기는 모습이 “그녀가 언제 돌아가느냐”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데서도 엿보인다.

A: 예 그냥 포기 상태에서- 또 이런 들려오는 얘기를 있잖아요. 누구는 갔다 뭐 누구는 신랑한테 맞아서 뭐 어떻게 됐다 이게 그제 빅뉴스였어요. 그렇게 시골 동네에 그런 사람들 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지금 나하고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나는 저가 젊어서 온 거고 그 아줌마는 재혼으로 온 거였어요. 근데 나가서 발일이랑 많이 했나봐. 그래 하다가 끝내는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근데 또 나가니까 저희 신랑 문씨거든요 문씨네 며느리는 또 언제 갈까, 막 소문이 그냥 쟁쟁한 거예요. 나가서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못 떨어요. 나가서 한마디 하면은 이게 퍼져가지고 동네에 또 이게 빠르잖아요. 소문에 소문이((웃음)) 뭐 어찌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그녀가 시부모들은 딱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얹전히 살림만 해라 그녀가 발일 안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집에 살림만 내가 다 도맡아서 하니까 그냥 시부모들갈

은 경우에는 진짜 백 점짜리 머느리였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중국 연변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1997년 강원도 횡성으로 시집 온 이영희씨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는 이제 혼인이주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여성으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온지 몇 년 후부터는 동남아에서 온 신부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외국인주부 그런 모임에 가보면 좀 안 됐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딱 봐도 표가 나잖아요 표가 나고 애들한테도 마이너스잖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50대? 50대 된 아저씨가 20대 막 된 필리핀이나 그런 애를.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건 진짜 싫거든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들을 훨씬 저렴한 비용에 조선족들에게 떠맡기는 현상은, 시골로의 결혼을 지극히 기피하는 한국인 여성을 대체하여 조선족 여성들이 시집오는 데서 똑같이 반복된다. 짧은 기간 안에 그 자리는 다시 언어도 모르고 경제상황이 더 열악한 동남아국가의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노동이든 결혼이든 이주는 이주자의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보다 유입국과 송출국간의 정치경제권력 관계가 훨씬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조선족의 사례들에게서 보게 된다.

2)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미국 이민자는 5명(조자룡, 이영미, 이혜순, 이정윤, 김정미)이며 이들은 모두 미국으로의 첫 이민 활성화인 70년대에 이민을 갔다.⁴⁾ 70년대의 합법적 이민자로만 연구를 집중한 이유는 이주국에서 불법이주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은 기정사실이어서 제외하

4) 이혜순씨만 1985년에 30대 말에 이주했는데 그녀의 형제자매들이 이미 4명이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여서 그녀의 생활방식이나 생각은 70년대에 이민한 사람들과 비슷하여서 여기에서 다루었다.

였고, 1990년대 즈음 재산을 처분하여 부유하게 이민 간 사람들이나 IMF 이후의 실직한 상태에서의 열악한 이민은 논지의 입증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이다. 본 논문은 1970년대 한국의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서 그야말로 할당된 만큼의 돈만 가지고 이민을 갔던 당시의 사람들을 다루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70, 80년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한국이민자가 많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필리핀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미국 이민자를 내었다. 1965년 개정이민법은 이민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선착순으로 이민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국가별 할당제를 반구별 할당제로 고쳤다. 또 미국시민의 친척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1970년대 4백만, 1980년대 6백만 이상의 합법적 이민이 미국 땅에 들어왔다(황혜성 336). 미국은 이 개혁안이 시민들의 친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므로 유럽백인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중 약 40%가 아시아인이었고 약 39%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출신이었다. 즉 약 80%의 이민이 이전 미국에서 잘 대변되지 않았던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이었다.

그런데 70년대의 이민물결과 이민자의 인종분포의 변화는 그냥 이민법이 개정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미국내의 이주자 유입요인과 제3세계 국가에서의 유출요인이 맞물려서 이민법 개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1960년대부터 미국 내에서 저임금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다. 미국의 이주 유입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1980년대 말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요인과 매우 흡사하다. 사스키아 사센은 1960년대 초반에 몇 가지 연관된 발달사항들이 미국인 내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하는 사람들의 현저한 축소를 가져와 저임금노동력의 수요가 팽창되었음을 지적한다(*The Mobility of Labor* 55). 지금껏 다량의 저임금 노동의 공급원이었던 시골농부들의 도시로의 이주가 이제 거의 끝물로 가고 있었고 흑인 · 치카노 · 여성 · 청소년과 같은 전통적인 저임금 노동층들이 이즈음부터 정

치 세력화되어 임금상승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이주자들은 서남부에서 저임금 일을 기꺼이 계속 했지만 북동쪽에서는 미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제 3D업종을 미국시민들 특히 백인들은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국 내의 다량의 저임금 노동 공급에 힘입어 식민지나 미군 주둔 등으로 미국과 관련성이 있던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이민신청의 붐물이 터졌다. 당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선진국의 대명사인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 국민들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나서게 된다.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는 필리핀과 더불어 단연 선두를 차지하던 한국인들의 미국 이주가 넘쳐날 때, 한국인들은 이주국 미국에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필자가 인터뷰를 한 한인 중 세 사람의 사례가 본 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된다. 이영미씨는 46년생으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73년에 결혼 직후 이민을 가서 그해 미국에서 정식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간호사로 오랜 동안 근무하다 현재 주유소와 카센터 등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9살 때 가족이민을 간 이정윤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다가 40세 즈음에 약사라는 전문직 때문에 가족과 함께 취업비자가 나와 남편과 네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간다. 똑같이 전문직종으로 비자가 나온 경우이지만 아직 20대여서 영어도 빨리 익히고 바로 간호사자격을 딴 이영미씨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40대에 들어섰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많았던 이정윤씨의 어머니는 병원의 메이드로 취업하여 모든 허드렛일을 하고 남편은 야채장수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해간다. 조자룡씨는 이영미씨와 한국에서의 경제적 수준만 다르고 나이나 이주 시기나 자녀상황이 모두 비슷하여 좋은 비교대상이다. 조자룡씨는 북한에서 남하한 가난한 실향민으로 대학졸업 후에 한국에서도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같이 대학졸업한 아내와 결혼 1년 만에 미국

이민을 떠난다. 그는 47년생이고 결혼 직후인 77년도에 이민을 갔고 이영미씨처럼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다. 매우 흡사한 시기에 흡사한 형태로 이민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영미씨는 간호사라는 전문직종으로 갔고 조자룡씨는 미국에서 필요하여 정한 직종으로 비자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와 가발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된다. 먼저 이영미씨가 간호사로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상황을 보자.

A: 간호원이나 닥터에게 이민이 개방된 거가 미국에서 한 71년도서부터. 그래요. 72년도서부터 완전히 개방이 돼 가지고 그때 의사들이며 간호원들이며 하여간 졸업하면은 뭐 대부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Q: 그 당시는 그랬군요. 가장 오기 쉬웠던. 여기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었군요.

A: 쉬웠던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기가 쉬워서 오자마자 뭐 그니까는 하와이를 거쳐서 이렇게 논스탑으로. 그때는 그 KAL 에 어라인이 LA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스톱바이 하면서 거기서 영주권을 발행해주는 거예요.

. . .

A: 그해 말에 자격증을 따고 소아과병동에서 일을 시작했죠. 근데 뭐 아무래도 영어가 딸리니까, 그래도 뭐 소아과 병동이니까 제가 한국에서 3년이나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고 이제 좀 영어가 약간 모자른단 그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거나 그런 거는 뭐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들고 여기를 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빈손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야. 법적으로 우리가 어메리칸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 제한이 300불 정도밖에 안됐었다고. 그때는. 와가지고 서는 이제 뭐 그래도 직업이 전문 직업이니까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19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외국 간호사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츨스키 190). 미국오기 전부터 영어공부를 해두고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경력이 있던 이영미씨 만이 미국에 와서 바로 간호사 자격증을 땀으로써 필자가 만난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같은 직종으로 수평이동을 하였다. 비슷한 의학계통의 전문직인 이정윤씨의 어머니의 경우가 오히려 미국 이민자들의 일반적인 케이스이다. 9살 때 이민하여 십대 내내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회계층의 '전락'과 경제적 압박을 지켜보던 심정을 이정윤씨는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저희 엄마가 그때 약사가 안되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 너어싱 홈(nursing home)에 취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호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메이드(maid)로 가니까 너무 힘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공부를 사실 그때라도 좀 몇 년 했으면 약사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너무 나이도 있고 영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엄두도 안났지만 또 뭔가 몇 년 먹고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빨리 어떤 가게든 뭐를 해가지고 먹고 살 거를 만들어 봐야 했어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아빠가 장사를 이렇게 알아보고 다니는 동안에 엄마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취직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처음으로 진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우린 너어싱 홈 근처에 살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 저것.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장사들이 다 막노동이잖아요. 생선가게 야채장사 다 이계 새벽에 가서 떼와 가지고 파는 그게 몸이 완전히 몇 년은 굶은다는 그런 장사들이거든요.

이정윤씨는 이민 가서 부모님의 어려운 처지를 마음 아프게 바라보며, 경제적 압박과 공부로 부모님께 보답하려는 심리적 부담 등으로 자신이

결국 조울증에 걸려 병원신세를 한동안 지기도 했다고 말한다. 조울증에 걸리게 된 이야기를 하기까지 가장 비중을 두고 한 얘기도 바로 부모님이 막노동 층으로 하락한 데 대한 고통이었다.

A: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아빠도 충격이었겠지만 어렸을 때 그걸 바라보는 저도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엄마 아빠가 희생하니까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저도 두렵고 또 한편은 또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려서 표현은 못했지만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저의 이런 힘든 문제나 제가 좀 안 풀리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서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편하게 잘사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와서 이러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 아빠가 바보같아요.

한국에서 북한 실향민으로서 살았던 조자룡씨의 경우나 가정주부였던 이혜순씨의 경우는 사회계층의 하락 같은 경험은 상대적으로 덜 하였지만 어쨌든 이정윤씨의 부모님과 똑같이 장사부터 시작하였다. 현재도 두 분은 LA의 카운티에 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상대로 각각 신발가게와 옷가게를 하고 있다. 조자룡씨는 “저를 조자룡이라고 그래요”라고 『삼국지』의 조자룡이라는 가명으로 스스로 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함축하였다. 그는 처음 시카고에 도착하여 본래 비자반은 직종대로 가발공장에서 한 1년 일하다가 흑인 99%인 그 부근에서 조그만 가발가게를 내었고 그 뒤로도 계속 장사를 하되 장사의 부침에 따라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며 9번 업종을 변경하게 된다.

A: 지가 이제 살면서 내가 잡(job)을 몇 번이나 바꿨나 하고 어저께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내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운동화 가게까지 아홉 개를 바꿨더라고요.

Q: 네- 업종이?

A: 예 업종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클리블랜드 야구장 앞에서 야채장사] 그렇게 계속 했으면 아마 더 나았을지 어쨌을지는 아직 끝까지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것도 한 삼 년 하고서 끝났어요. 왜냐 하면 지가 그거 하기 전부터 거기에 야구장을 진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뭐 한 십 년을 끝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시 재산이 었구 그거를 이제 야구장으로 바꿔갖고, 추신수 선수 아시죠? 바로 그거 지었어요.

.....

경기장 옆에다가 채렸죠. 그냥 중국음식 테이크아웃만 하는 음식을 팔았죠. 홀은 별로 없고, 의자 몇 개 있는 테이크 아웃집.

Q: 어떠셨어요 그 경기는요?

A: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니깐 이게 아홉 번을 바꾸는데 이게 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뭐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하느님이 길을 인도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다 내 뜻하곤 거의 무관하게 이렇게 자꾸 밀려난 그런 게 있었죠. 그것도 한 5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 국제 정세가 그 왜 홍콩 반환 있었죠.

예. 홍콩 반환이 된다고 그래갖고 홍콩에서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 중공이 된대니깐요, 예 그래갖고 그 홍콩 반환은 그 이후지만은 그 몇 년 전에 벌써 빨리 도망 오는 사람들은 돈 싸들고 오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 막 흩어지는 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불뚱이 튼 거예요. 홍콩서 온 친구들이 우리 길 건너 그쪽에 하나 둘 내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니까 일본 사람이 김치찌개 파는 거예요. 내가 ((함께 웃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가발 가게 그러죠, 그 저 과일 가게 그러죠, 이 식당 그러죠, 그러고서 또 계속 또

모든 게 아홉 번째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조자룡씨의 구술은 영어가 안 되어 잘 파악할 수도 없는 미국에서 주변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역과 업종을 바뀌가며 생존해 가야 되는 70년대 평범한 한인 가정들의 이주사였다. 70년대 다양한 직종을 갖고 한국에서 일하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갔을 때 대체로 점포도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로 시작하였다. 간호사로 근무한 이영미씨의 수평 이동의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의 미국한인들이 사회계층 상의 하락을 크게 경험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선족이 한국에 왔을 때의 10:1, 5:1과 같은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지만 워낙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열심히 몸으로 노동을 한 만큼 자신의 인건비만큼은 충분히 벌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센은 1970년대 이민국(INS)의 자료에 따르면 이주자의 직업분포도가 두봉우리성(bimodal)의 소멸로 특징지어 졌다고 말한다. 대부분 아시아계와 라틴계가 주로 들어왔던 1970년대에 출신국에서 들어올 때 이주자들의 직업분포는 고위직종과 하위직종으로 두봉우리성 형태를 띤다. 그런데 일단 미국에 오면 두봉우리성의 정도는 현격히 감소하여 교수나 전문기술직과 같은 고위직종은 사무직이나 직원과 같은 보다 낮은 직종으로 가고, 주부나 농사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직종은 봉급은 조금 나은 서비스나 비농업노동으로 옮긴다고 말한다(*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56). 한국에서의 다양한 보통의 직종에 근무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대부분 장사나 공장 직공 일을 함으로써 두봉우리가 크게 하향되고 평준화되어 두루뭉실하게 깎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70, 80년대의 아시아와 라틴계의 이주자들이 대부분 대도시 주변의 허름한 작업장이나 시장에서 서비스와 장사에 종사한 것이다.⁵⁾ 이는 이주자들의 능력이나 실패나 성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출신국과 미국 간의 사회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노동군에 이주자들이 크게 분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순환이주(return migration)에 나타난 출신국에 따른 차별대우

지난 10년 동안 이주가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가 되면서 학계와 사회에서 관심이 부각되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주의 보다 복합적 양상인 순환이주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일고 있다. 순환이주는 특히 일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대규모로 일본인들은 남미로 이주를 하였는데 특히 브라질로의 이주가 백만을 넘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브라질에서 일본인들은 본국의 문화적 경제적 탁월성과 브라질에서의 그들의 괄목한 성과에 힘입어 매우 “긍정적인 소수민족”(positive minority)으로 자리를 잡았다(Tsuda,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65). 그들은 브라질 시민보다도 더 우월한 제1시민으로서의 입지에 서 있었다. 그런데 첫 일본인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발을 디딘 뒤 약 80년 뒤에 테이블은 뒤집어져서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알곳은 운명에 처한다. 1980년대부터 브라질은 경제파동으로 높은 외국채무와 실직에 허덕이게 되고 반면 일본은 경제지적을 이루어 세계 제2 경제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대부분 브라질에서 중산층 이상에 속하던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일본과의 임금과 통화가치의 차이로 브라질보다 5-10배 더 벌수 있는 모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되어 간다(Tsuda, *Acting Brazilian in Japan* 55). 일본에서 이 니케이진

5) 1970-80년대에 이민자와 네이티브의 직업분포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가 더욱 차이가 났다. 이주자에게서 직공과 서비스업의 몫이 증가하여 히스패닉 여성 중 70%, 아시아 여성 이주자의 40%가 이러한 도시의 하위직종에서 일했다. 이민이 가장 많은 다섯 개 주의 직공의 경우를 보면 미국 네이티브 여성은 8%인데 반해 이주여성들은 25%가 직공으로 일했다(Sassen, *Cities in the World Economy* 50).

(nikkeijin)⁶⁾들은 이번에는 혹독한 “부정적인 소수민족”이 된다. 그들의 몸매 배인 브라질성은 멸시와 편견의 대상이 되고 브라질에서 중상층이었던 그들은 비숙련외국인 노동자로 급격한 사회적 계층의 전락을 경험한다. 최근 이들 니케이진 자신들의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함께, 같은 일 본인이면서 경제적 수준이 더 낮은 나라에서 살다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 순환이주자에게 차별과 지위강등을 혹독히 부과하는 데 대한 반성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계 브라질인과 같은 순환이주자는 바로 중국 조선족이다. 그들의 선조가 한국인이고 모국의 경제상황이 더 높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들어와서 공사판, 식당, 가정집 등 온갖 곳곳 일을 도맡는 하층 노동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하지, 같은 한민족이 고국으로 되돌아온 순환이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조선족이 하위 노동층에 밀집 분포된 것이나 한국 업주에 의한 육체적 학대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수요의 필요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야 했을 때 언어가 같아 이질성이 덜하는 조선족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3D업종의 부족인력을 메꾸고 있는 국가경제운영에 대해 순환이주자의 관점에서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을 순환이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만 보지 않게 된다. 순환이주라는 관점은 같은 민족인데 다만 경제적 상황이 더 나쁜 나라 출신이라는 근거로 이들을 마치 우리와 다른 ‘부정적 소수민족’인양 ‘조선족’이라 칭하며 한국의 맨 하층 밑바닥 경제를 떠

6) 일본은 해외에서 특히 남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던 일본계자손을 니케이진이라 부른다. 유명한 일본계미국작가로 미국에서 태어나 브라질로 인류학연구를 갔다가 브라질 남자와 결혼하여 십년 넘게 브라질에서 살았던 카렌 타이 야마시타(Karen Tei Yamashita)는 *Circle K Cycles*에서 일본으로 순환이주를 간 니케이진들의 심각한 문화적 경제적 갈등을 다룬다.

반치도록 구조화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한다.

일본계 브라질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에 대해서 순환이주의 관점에서의 조명이 적은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의 일본인들의 우월한 입지와는 달리 조선족은 중국에서도 미약한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즉 출신국에서의 그 민족의 입지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일본에서는 일본계 브라질인들에게 어찌되었든 정주권을 부여하나, 우리나라는 조선족에게 정주권을 부여하지 않아 불만을 싹을 보다 차단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다. 조선족에 대한 차별대우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개인적 상황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미국한인들의 한국생활을 보면 분명히 대비된다. 조선족과 다시 한국에 온 한인은 둘 다 순환이주에 해당된다. 필자가 만난 구술자 중 이정윤씨와 김정미씨가 이 경우이다.

한국에서 약사를 하던 부모님이 미국에서 온갖 장사를 하며 힘겨운 노동생활을 하는 데 무척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이정윤씨는 미국 주재원의 아들이었던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다 남편이 다시 한국 주재원으로 나와 한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 7살 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갔던 김정미씨는 대학 때 한국유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나와 살게 된 경우이다. 두 사람 다 자녀가 미국시민권이 있어 한국에서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정윤씨는 주재원의 자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고 자녀들의 국제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한국 딱 나오니까 일단 일을 안해도 돼요. 돈을 버는 게 좋겠지만 안해도 되어서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남편이 여기 오니까 이렇게 잘 벌고 이렇게 여유가 있게 살게 되고 국제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결이 되니까 큰 프레서(pressure)가 없거든요. 제가 여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늘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보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된다고보다도 뭐랄까 경제적인 안정이 매우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힘든 게 이제 지나온 패스트(past) 같아요. 그래서 인제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이민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국 와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메꾸어 주는 것 같아요.

김정미씨의 아이들도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정윤씨가 국제학교 학부형들과 어울리며 노력하며 국제학교가 자녀에게 좋은 교육기회라고 만족하는 데 반해 김정미씨의 경우는 아들이 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결국 다시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내게 된다. 이년 동안 기러기가 죽을 하고 아들을 미국에 다시 정착시키고 돌아와 동생을 다시 국제학교에 보내는 김정미씨는 이민 1.5세대인 자신은 토박이 한국인이며 상류층인 국제학교 학부형과 융화되기가 참 힘들다고 토로한다.

A: 근데 그 강남을 넘은 게 국제학교래요 그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웃음)) 넘은거야 그니까 거기 못 들어가면 강남이지 정말 국제학교 들어갈려면 별 짓을 다한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뭐 다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꿈이래. 나는요, 내가 미국에서 커서 그런지, 나는 사실 요번에 우리 딸을 한국학교 보낼라고 마음 먹었어요 내가 진짜 누가 보면 미쳤다고 말해도 근데 난 우리 아들때문에. 너무 상처가 커서.

Q: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있으니까 보내라 하겠죠.

A: 근데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안해요. 솔직히 그니까 나는 내가 겪어봤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다는 부분이 보여요. 뭐 사치하니 뭐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사실 거기 장난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엄마들 잘사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난 평범하게 컸고 내가 좀 부

갓집에 시집은 갔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 워낙 구두쇠라서 나는
부갓집 며느리같이 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맨날 일하고
이래서 그런 느낌을 못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울리지를 못하
겠어요.

김정미씨는 자신은 가족이민 가서 보통의 이민가정처럼 애써서 살다
가 유학생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왔는데, 원정출산까지 해서 특권층 교육
을 받게 하려는 상류층 국제학교 학부형과 같은 울타리 안에 놓이면서
느끼는 이질감을 비판적으로 말한다. 미국에서의 비슷한 이민 상황과 한
국에서의 사회계층의 상승을 경험하면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순환이주를 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직업 면에서 상당히 큰 이점이 주어지
고 있음은 두 사람의 구술 모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민인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미국에서 살다온 것이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이 되는
데에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문화적 자산도 크게 작용한다.
김정미씨는 한국에서 네이티브 자격으로 서울의 모 대학에서 영어전임으
로 일하는 큰 혜택을 받는다. 이정윤씨가 남편이 한국에 오자 좋은 조건
으로 회사들이 스카웃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한인들의 영어
사용 능력의 이점이 부각된다.

저희 남편이 한국 와서 잘 풀렸어요. 네 미국에서도 잘 하기는 했었지
만 한국 와서 보니까 더 이렇게 ‘valuable’ 하게 된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서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를 많이 일을 했는
데 한국 와보니까 자기 초이스가 더 넓어지더라구요. 남편이 그래서
중간에 직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지금 또 다른 데로
갈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 생각에는 여기에서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진 가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원래는 정말 2년
만 나 좀 회복하면 다시 들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우리 딸이

아마 대학교 간 다음에나 갈 것 같아요.

영어가 세계 지배어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나라나 직종을 망라하여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필리핀 여성이 가사노동자로 가장 인기가 좋은데 그 이유도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체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Oishi 51).⁷⁾ 마찬가지로 미국한인의 순환이주 사례를 혼인으로 조상의 모국으로 돌아온 이애숙씨와 이영희씨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자명하다. 두 사람은 다 한국여성들이 기피하는 시골로 시집갔고 남편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고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두 사람 다 대우가 열악한 중국어 가정방문 학습지 회사에 한때 다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출신국의 정치경제적 입지나 언어적 이점에 따라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속하는 사회경제적 입지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은 미국한인과 조선족의 경우에서 뚜렷하다. 미국한인과 조선족은 똑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그들이 이주해간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입지에 따라 많은 부분 결정되어진 채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4. 구술생애사와 주체의 행위성

지금까지 필자는 국가 간의 불균등관계 속에서 이주자가 본국을 떠나

7) 라셀 R. 파레나스(Rhacel Parrenas)는 『세계화의 하인들』(*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에서 자신과 같은 민족계인 필리핀 여성들이 로마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세계 대도시에서 가사노동자로 모든 민족 중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다만 나나 오이시는 이주연구에 영어 변수를 고려하는 데 비해 파레나스는 필리핀인들이 다른 나라의 이주자들과는 달리 영어구사능력이 있다는 특성에서 나오는 유리한 고용관계나 세력화 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주국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 사회경제적 위치는 출신국의 사회경제적 입지에 의해 아주 많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을 구술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마치 자연주의 소설의 세계에서처럼 이렇게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반경이 결정되어 버리기만 한다면 이는 매우 통감할 일이나 필자가 만난 구술자들의 삶은 그 뒤 5년, 15년이 지나면서 다채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의 품미는 자신들의 주체성과 행위에 의해 상당히 달라짐을 보게 된다. 구술사방법의 장점이며 감동은 바로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로 만들어가는 삶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Personal Narrative Group 38). 이주 생애사의 감동은 이주자들의 상당히 결정화된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 나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서 배어난다.

주체의 행위성이 각 개인의 인생을 모양 짓는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주체와 권력」에서 자신이 지난 20년간 해온 작업의 목적은 권력의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변형시키는 대상화 양식, 즉 권력의 형식을 연구해왔다고 말한다. 권력의 형식을 연구한 목적은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86). 개인들은 자신을 고착시키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정해진 정체성에 묶어두고, 개인들을 분리시키고, 다른 이들과의 연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반응하며 공격을 가한다.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은 권력의 형식이다. 권력의 통제에 구속되어 있는(subject to) 존재이면서 권력의 형식에 대한 저항의 모든 부단한 행동과 의식이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92). 한편 한스 요아스(Hans Joas)는 행위주체와 사회관계의 형성에 대한 설명을 행위이론적으로 제시한다. 요아스에 따르면, 행위는 존재의 한 부분적 양태가 아니고 행위는 존재 자체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순수하게 ‘존재’로서만 있지 못한다. 오직 ‘존재함’ 속에서만 ‘존재’는 가능해진다. 그 ‘존재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위이다”(13). 즉 요아스는 사회와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행위

가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필자가 만난 구술자들은 출신국과 유입국 간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이면서 푸코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권력의 형식에 대한 저항”을 하거나 한스 요아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행위의 창조성”으로 주체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주자들의 이주 정착 기반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가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그 사람의 행위성에 따라 풀어나가는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구술자들은 모두 이주를 잘한 선택이라고 최종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어떤 경우는 자기합리화가 포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두 시간동안 다 듣고 나면 필자도 그러한 평가에 수긍이 갔다. 모든 사람이 노동 때문이든 결혼 때문이든 이주를 선택하고 그 힘든 노동을 수행해내고 있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언어와 풍토가 전혀 다른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의 경우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이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은 유익한 질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족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두 세 번씩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따고 싶나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선족 노동이주에 해당되는 손명자, 김순정씨 모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다. 이들의 경우에 이주를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러 몇 년씩 오는 것에 대해 잘한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손명자씨는 늙어서까지도 일하는 한국인들의 고단한 삶이 오히려 안쓰럽다는 인상적인 말을 했다.

A: 체류 기간이 끝나면 가야돼요

Q: 예 그것도 그렇지만 만일에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은 없는 건가요?

A: 없어요 진짜예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www.kci.go.kr

중국에 신랑이 없다 해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피곤하단 말야 여기 생활은. 왜냐하면 내가 침에 와서 집도 없고 이렇게 시누이 집에 다니고 시동생네 부부간에 와있어 거기 가서 놀고 자고 아침에 일찍이 올때 있잖아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타고 출근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거야. 평생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게 살겠냐고 여기 사람들은.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 때 많죠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니까 제나라에 가 돈 벌어야, 자기 나라가 맘이 편해도 편하잖아요 벌써 차있어요. 뭐 누가 뭐이라 해서가 아니라 벌써 압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 누구에게 구박받아 그게 아니죠 이 평상시 생활에서 사는 거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고 이렇게 벌여갖고 평생 여기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생활인가. 우리 친정 오빠가 그래요 야 여기 사람들이 이 늙은 사람들이 다리 한내 쫘쫘한 사람 어딴가 봐라 다 다리 휘었대. 야, 여기 할머니들은 벌써 5, 60대 되면 다리 쫘쫘한 사람이 없대 다 휘어갖고 너무 일해 갖고 야 우리 중국은 어드메 그렇게 70이나 벌써 한 60넘으면 다 어느 정도 자식이 있는지라 다 놀잖아요

손명자씨나 김순정씨처럼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단기 이주인의 경우는 한국사회를 심적으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았다. 혼인이주를 한 이애숙씨 경우에는 상해에서의 한국기업에 취업한 3년 동안 중국 한족과 한국인들을 보며 느낀 빈부격차와 개개인의 소중함이라는 생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의 낮은 경제상황이나 사회계층 하락을 다소는 초연하게 자연인처럼 바라보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이주국에서 정착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손해 본 거라는 그러한 타산적 계산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중요한, 주변 사람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한인 중에서 주체의 행위성이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은 70년대 영어도 못한 채 ‘몸뚱이’ 하나로 시작한 많은 한국인 가장의 곳곳 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자룡씨였다.

Q: 지금은 그럼 살거나 이런 거는 다 어떠세요? 대체로 만족하시고 계신 건가요?

A: 뭐 만족이야 없겠죠. 만족이야 없지만은 만족할라 그럼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여기 처음에 지가 땀니까 30대 초반에 여기 이민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와이프한테도 야, 내가 환갑 때까지만 부지런히 벌면 당신하고 나하고 한국 가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집 하나, 한국에다 집 하나 이렇게 왔다갔다하며 살면 좋잖아? 이려고 왔죠. 근데 그게 헛꿈이었습니다. 그 꿈 깨야 돼요. 빨리 깨는 게 우리 건강상 좋고, 저가 1970년대 말에 왔잖습니까. 내 사고방식이 고때 그 사고방식에 고정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은 이렇게 너무 물질만능 아닙니까. 돈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린 그 정, 예의, 염치, 이런 걸 더 좀 이렇게 높이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새귀든지 봐도 뭐 이렇게 출세한 사람보다는 아, 저 사람 그, 뭐랄까 정신 상태 이런 걸 보죠 그래서 더 존경을 하고 친교를 할라 하고 이런 면이 더 강하죠.

이주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필자는 이주 구술생에서는 행위지향의 형식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주자들은 본국에서 삶을 접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로 하는 결단, 이주국에서 맨몸으로 일어서는 지난한 행위,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 소속감을 찾기 위한 분투, 투지와 노력, 좌절과 순응을 수없이 겪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주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한 강도와 큰 안목의 삶을 살게 되며 역지사지나 상대주의, 자신의 한계나 가능성에 대해 훨씬 깨어있는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지금껏 필자는 영문학 전공자로서 이주문제를 소설이나 이론서를 통해서만 작업해 왔다. 그러다 최근 2년여를 거쳐 구술생애사 작업을 처음 해보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없이 떠나 온 나라의 세계경제 속의 입지가 이주국에서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크게 결정지운다는 사실을 구술자의 삶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였다. 현재의 세계화는 노동의 세계화를 포괄함을, 그 노동의 세계화는 불균등한 국가경제력 간의 위계화에 따라 진행됨을 이주자의 삶 속에서 보았다. 동시에 이주자들은 5년, 15년 이주국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 나가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성있고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틀에 한정되지 않으려는 주체적 존재를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논문의 자료가 구술 아카이빙이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힘겨움 속에서의 웃음을 수시로 목격하였다. 이는 인간의 실제 삶이 주는 절대 포기 안 되는 희망 때문이다. 소설의 경우는 이주자의 정착단계의 상당히 결정화된 삶이나 사회적 위치의 강등이나 언어적 문화적 불통과 같은 상황에서 인물들이 다분히 불행한 삶으로 마감한다. 똑같은 이주를 다룬 소설인 김재영의 『폭식』의 단편들에서도 한국에서 실직한 후 미국에서 여러 단발마적인 직업을 전전하는 사람이나 미국사회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의 인물들은 결국 슬픈 결말로 끝을 맺고 만다. 사람들의 실제 삶인 구술생애사는 이주국에서의 자신의 계층을 결정지우는 본국의 끈질긴 영향력을 구술자들이 수년 동안 몸으로 부딪끼며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절망과 분투를 구술자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살아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기고 새 문턱으로 다시 들어선다. 구술생애사는 그러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위치 지어진 주체의 노력 실은 행위를 담은 역사이다.

〈구술내용 자료〉

조선족	구술일	구술자 가명	성 별	면담자	내용
조선족 (이주 노동)	2009. 3월	손명자	여	이선주	58년생. 중국 연변. 남편은 세무서 공무원이 고 자신은 농사, 마트 등을 함. 2000년 아들 대학교육비를 위해 혼자 노동이주. 한국에 서 9년 일함. 식당-간병인-현재 가정집
조선족 (이주 노동)	2009. 6월	김순정	여	고유경	54년생. 중국 연변. 아버지와 남편 모두 철도청 직원. 남편과 결혼 10년차 사별. 농사짓는 남편과 재혼. 양쪽의 자녀 4명 양육. 아이양육문제로 남편과 99년도에 한국 노동이주. 식당-가정집.
조선족 (혼인 이주)	2009. 8월	이영희	여	이선주	76년생. 중국연변. 97년도 21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횡성으로 이주. 학습지 중국어 방문교사. 가정주부. 아들 2
조선족 (혼인 이주)	2009. 8월	이애숙	여	이선주	75년생. 중국 연변. 아버지는 공무원. 고등 학교는 상해에서 공부. 상해의 한국기업에 서 통역사로 3년 근무. 고향에서 한국인 남편을 소개받아 96년 횡성으로 이주. 남 편은 일일노동자. 아들 2.

미국한인	구술일	구술자 가명	성 별	면담자	내용
미국한인	2010. 2월	조자룡	남	이선주 김은령	47년생. 어린시절 북한 파난민. 결혼 1년 후인 77년 30세때 이민. 아들 둘 미국태생. 사카고에 가발공장-야채음식집화장실함, 현재 LA 거주
미국한인	2010. 2월	이영미	여	이선주 김은령	46년생. 대학병원간호사로 3년 근무. 결혼 직후 76년 간호사우대로 이민. 10년 걸쳐 친정자매, 시부모, 시동생 모두 이민. 미국 간호사-현재 카센타,주유소운영
미국한인	2010. 2월	이혜순	여	이선주 김은령	85년도 30대 말에 가족이민. 가정주부였고 아이는 3세, 8세. LA 코리아타운에서 옷가 게. 현재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옷가게. 자녀들 좋은 대학 장학생.
미국한 인(순환 이주)	2009. 6월	이정윤	여	이선주	76년 9살 때 가족이민. 약사인 엄마의 취업 이민. 한국에서 중산층이상. 부모님이 미국 에서 병원메이드-야채장수-다양한 장사 경 험. 한국유학생과 결혼. 미국생활 후 3년 전부터 남편의 한국주재원자격으로 한국생 활. 자녀 국제학교. 생활 윤택
미국한 인(순환 이주)	2009. 7월	김정미	여	이선주	76년 7살 때 가족이민. 중산층, 미국에서 부모님 장사.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 한국으로 순환이주. 자녀는 국제학 교. 대학에서 네이티브 전임 경력.

참고문헌

- 김재영. 『폭식』. 서울: 창비, 2009.
- 라셀 살라자르 파레나스. 『세계화의 하인들』. 문현아 옮김. 서울: 여이연, 2009.
- 미셸 푸코 외. 「주체와 권력」.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역음. 서울: 새물결, 1994. 86-98.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아르준 아파두라이.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 외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4.
- 아비바 촘스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과 신화』. 서울: 전략과 문화, 2007.
-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학』. 안병직 외 역음.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2. 25-80.
-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5.
- . 「탈경계와 질적 연구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탈경계인문학연구단 특강발표문. 2009년 4월10일. 1-12.
- .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노동운동의 의미 —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Journal of Women's Studies* 17(2002): 33-62.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2006): 258-98.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2005): 120-48.
- 제니퍼 메이슨. 『질적연구 방법론』. 김두섭 옮김. 서울: 나남, 1999.
- 한스 요아스. 『행위의 창조성』. 신진욱 옮김. 서울: 한울, 2002.
- 황혜성. 「미국: 센센브레너 법안과 이민법 논쟁」.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박단 역음.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327-46.
- Dunaway, David K.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New York: Altamira, 1996.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8.
- Gills, Dong-Sook and Nicola Piper (Eds.). *Women and Work in Globalising Asia*. New York: Routledge, 2002.

- Harley, Sharon (Ed.). *Women's Labor in the Global Economy*. New Jersey: Rutgers UP, 2007.
- Hatch, Amos and Richard Wisniewski (Eds.). *Life History and Narrative*. London: The Falmer Press, 1995.
- Kirk, J. and Marc L. Miller.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1986.
- Oishi, Nana. *Women in Motion — Globalization, State policies, and Labor Migration in Asia*. Stanford: Stanford UP, 2005.
- Personal Narrative Group. *Interpreting Women's Lives: Feminist Theory and Personal Narratives*. Bloomington: Indiana UP, 1989.
- Popular Memory Group.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Making Histories*. Ed. R. Johnson. Minneapolis: Minnesota UP, 1982. 205-52.
- Sassen, Saskia.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_____. *Cities in a World Economy*. New York: Pine Forge Press, 1994.
- _____.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The New Press, 1998.
- Tsuda, Takeyuki.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P, 2003.
- _____. "Acting Brazilian in Japan: Ethnic Resistance Among Return Migrants," *Ethnology* 39.1 (2000): 55-71.
- Yamashita, Karen Tei. *Circle K Cycles*. Minneapolis: Coffee House Press, 2001.

Influence of Homeland on Migrants'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rough Oral Life History

Seonju Lee
(Ewha Womans University)

Do nations really lose their power and influence through global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fierce movement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necessity of response at a transnational level diminish the power of a nation's status. But the power of a nation doesn't weaken at all in control and influence with respect to people's migration. When migrants leave their homeland to start new lives in another country, how possible is choosing one's vocation according to their one's ability?

This article selects the oral life histories of 4 Chosun-tribe individuals and 5 Korean Americans, whom I interviewed extensively to show the influence of homeland on the migrants' socio economic statu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I selected Chosun-tribe individuals and Korean Americans as research subjects. They make up most of the migrants involved in Korea. Second, Chosun-tribe individuals, who have lived as a powerless ethnic minority in China and migrate to their ancestral homeland, and Korean Americans, who immigrated to America as the Third World individuals in the 1970s, can be shown to have been the

same sort of unskilled workforce and to have had the same sort of low-class social status. Third, both Chosun-tribe individuals and Korean Americans who have come back to Korea for marriage or job constitute the same sort of return migration. Even though they constitute the same sort of return migration, Korea's treatment of them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research shows that what job the migrants have and what social status they take ar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homeland.

주제어: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이주자(Migrants), 출신국(Homeland), 이주국(Host Country), 주체의 행위성(Subject's Agency)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